

**기술유출·탈취, 짝퉁 대응 강화...침해사범 송치 32% 증가****- 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발표 -**

- 기술침해사범 송치 33% 증가, 위조상품 유통사범 송치 32% 증가 -
- 국가핵심기술·디자인 보호, 위조상품 단속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 지식재산침해 범죄 : 기술범죄(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 위조상품범죄(상표)

<기술범죄 수사실적>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증가하였다. [붙임 1-1]

특히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관련하여 약 1년간 2만3,0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조상품범죄 수사실적>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또한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붙임 1-2]

특히 K-문화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하여 정품가액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K-연예인 팬 상품 등 한류 문화자원 관련 위조상품 유통에도 적극 대응해 지난 2~3월에 걸쳐 방탄소년단 등 K-연예인의 팬 상품 위조품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

한편,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26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상반기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붙임 2-1]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명→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붙임 2-1]

위조상품범죄에서는 신고(6%, 70건→74건)에 비해 고소·고발 사건*(198%, 47건→140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이는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붙임 2-2]

* 고소·고발 140건 중 상표권자 직접고소가 138건 (전년 동기(46건) 대비 20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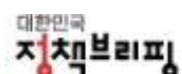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6년 상반기 수사실적

붙임 2: '26년 상반기 사건 접수 현황

붙임 3: 수사 사례

담당 부서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구자욱 (042-481-3342)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담당자	사무관	김도중 (042-481-3374)



1 기술범죄 수사실적

< 기술범죄 송치 인원 수 현황 (괄호는 사건 수) >

인원(명), 사건(건)

구분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기타*	합 계
'25년 上	38 (14)	29 (9)	27 (17)	27 (11)	121 (51)
'26년 上	44 (19)	23 (4)	64 (30)	30 (13)	161 (66)
증감률	16% (36%)	△21% (△56%)	137% (76%)	11% (18%)	33% (29%)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형태모방), 상표(복합사건) 등

< 기술범죄 피해주체별 송치 인원 수 현황 (괄호는 사건 수) >

인원(명), 사건(건)

구분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기타*	합 계	비율
개인	'25년 上	9 (5)	-	16 (10)	3 (2)	28 (17)	23% (33%)
	'26년 上	18 (9)	-	26 (14)	9 (5)	53 (28)	33% (42%)
중소기업	'25년 上	29 (9)	26 (8)	11 (7)	22 (8)	88 (32)	73% (63%)
	'26년 上	26 (10)	22 (3)	34 (15)	18 (6)	100 (34)	62% (52%)
중견기업	'25년 上	-	-	-	-	-	-
	'26년 上	-	-	-	3 (2)	3 (2)	2% (3%)
대기업	'25년 上	-	3 (1)	-	2 (1)	5 (2)	4% (4%)
	'26년 上	-	1 (1)	-	-	1 (1)	1% (2%)
해외기업	'25년 上	-	-	-	-	-	-
	'26년 上	-	-	4 (1)	-	4 (1)	2% (2%)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형태모방), 상표(복합사건) 등

2 위조상품범죄 수사실적

< 위조상품범죄 송치 인원 수 현황 (괄호는 사건 수) >

인원(명), 사건(건)

연도	'25년 上	'26년 上	증감률
송치인원 (송치사건)	141 (105)	186 (142)	32% (35%)

< 정품가액 기준 주요 압수품목 현황 ('26년 상반기 송치 건 기준) >

압수량(점), 가액(억원)

품목	가방류	의류	시계류	신발류	장신구류
압수량	6,057	17,725	132	4,174	677
정품가액	430.1	94.9	66.4	16.4	7.2

1 사건 접수 현황(전체)

< 입건자 수 현황 (괄호는 사건 수) >

입건자(명), 사건(건)

구분	기술범죄					상표 분야	총 계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기타*	소 계		
'25년 상	66 (26)	15 (9)	36 (21)	23 (10)	140 (66)	248 (138)	388 (204)
'26년 상	50 (26)	42 (12)	41 (24)	30 (14)	163 (76)	307 (230)	470 (306)
증감률	△24% (-)	180% (33%)	14% (14%)	30% (40%)	16% (15%)	24% (67%)	21% (50%)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형태모방), 상표(복합사건) 등

2 사건 접수 현황(접수경로별)

< 접수경로별 입건 사건 수 현황 >

(건)

구분		기술범죄					위조상품 범죄	총 계
		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기타*	합 계		
고소· 고발	'25년 상	24	2	18	8	52	47	99
	'26년 상	21	7	19	10	57	140	197
신고	'25년 상	-	-	-	-	-	70	70
	'26년 상	-	-	-	-	-	74	74
기획· 인지	'25년 상	1	1	3	2	7	14	21
	'26년 상	1	2	4	3	10	11	21
경찰 이송	'25년 상	1	-	-	-	1	-	1
	'26년 상	4	2	-	1	7	-	7
국정원	'25년 상	-	6	-	-	6	-	6
	'26년 상	-	1	-	-	1	-	1
검찰 직수 등	'25년 상	-	-	-	-	-	7	7
	'26년 상	-	-	1	-	1	5	6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자목(형태모방), 상표(복합사건)

① 기술유출 전고체전지(SSB)*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

* (Solid-State battery) 기존 리튬전지의 액체 대신 고체전해질 사용,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높인 차세대 전지

- 피해기업 임직원과 내통하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핵심정보를 유출하려 한 해외협력사 직원 구속·송치(26.1.)



② 형태모방 글로벌 K-패션 브랜드* 대상 '신제품 데드카피' 적발

* 아이웨어(Eye-wear) 분야에서 新 명품 반열에 오른 국내 브랜드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 구축

- 피해기업의 상품 형상 40여 종을 그대로 모방하고 판매하여 대규모의 상업적 성공을 이룬 업자와 사업체를 업자 구속·송치(26.2.)



③ 관광상권 단속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 단속

- 부산 일대 비밀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단속하여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가액 약 182억 원)을 압수하고 관련 사건 검찰 송치(26.1.)

*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통해 방문·구매



④ K-굿즈 위조 K-팝 팬 상품 대규모 유통 단속

- 서울·부산 일대에서 기획단속을 통해 방탄소년단 등 K-팝 스타의 굿즈 위조품(포토카드, 키링, 머그컵 등) 총 2만 7천여 점을 압수(26.2~3.)

